

행복한 성장, 민선6기 지역총생산 100조 시대 초입기

민선 부활 20주년 주요 도정 통계 분석

－ 95년 후 GRDP 82조 · 인구 26만 증가, 수출 · 입 6배, 예산규모 10조로 경총 - 전년 대비 13.2% 감소...물놀이 안전사고 ZERO 달성 등 성과

민선지방자치 부활 첫 해인 지난 1995년 이후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6.58배가량 늘고, 수출은 5.59배, 무역수지는 4.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는 26만여 명, 도와 시 · 군 예산 규모는 3.5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민선 부활 20주년을 맞아 충남통계연보와 실 · 과 관리 자료를 재정리해 도정 주요 통계 변화를 민선 주기별로 분석한 결과 충남이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파른 경제 성장 2013년 GRDP 100조 원 육박

통계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은 민선 부활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거듭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GRDP는 1995년 14조 7740억원에서 2001년 30조 5320억원, 2005년 47조 5140억원, 2009년 65조 1330억원, 2013년 97조 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18년 새 6.58배, 금액으로는 82조 426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수출 · 입과 무역수지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수출의 경우 1995년 116억 5308만 8000달러에서 2014년 651억 8531만 8000달러로, 535억 3223만 달러, 5.59배 증가하고, 수입은 48억 7405만 7000달러에서 339억 8002만 달러로 291억 596만 3000달러, 6.97배 늘었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1995년 67억 7903만 1000달러에서 2001년 24억 777만 7000달러로 주춤했다 2005년 156억 5619만 5000달러, 2009년 202억 9916만 달러, 2014년 312억 529만 8000달러로 상승했다.

사업체 수 및 종사자는 2001년(1995년 통계 없음) 11만 8,197개 50만 9,575명에서 지난해 14만 5998개 77만 7843명으로 늘고, 산업단지는 1995년 72개 6,724만 1000㎡에서 2014년 142개 1억 511만 6000㎡로 증가했다.

▲ 사회복지시설 47곳에서 335곳으로 7배 급증

경제 규모 확대는 사람을 끌어 들이고, 지자체 예산 급증도 불러왔다.

도내 인구 수(외국인 포함)는 1995년 185만 5,346명, 2001년 192만 8,088명, 2005년 198만 2,495명, 2009년 207만 5,249명, 2014년 211만 6,83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에 따라 9만 명 가까운 인구가 빠져 나갔으나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도와 시 · 군 예산 규모 역시 1995년 3조 9,006억 7,600만원에서 출발해 2001년 6조 6,187억 1,700만원, 2005년 9조 5,908억 9,800만원, 2009년 13조 1,466억 3,600만원, 2014년 13조 7,987억 3700만원 등으로 크게 상승했다.

사회복지 및 의료 인프라도 대폭 확대됐는데, 사회복지시설 수 및 수용인원은 1995년 47곳

4,835명에서 2014년 335곳 1만 979명으로, 의료 시설은 888곳에서 2,089곳으로, 의사와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인력은 5,865명에서 1만 7,265명으로 각각 늘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1995년 7만 4,560명에서 2014년 5만 3,288명으로 줄었다.

▲ 자동차 3배 증가 불구 교통사고는 3분의 1로 급감

주거는 아파트 선호도가 두드러졌다. 단독과 연립 주택은 1995년 34만 8,960호, 3만 2,840호에서 지난해 30만 7,565호, 2만 4,180호로 준 반면, 아파트는 7만 7,964호에서 35만 8,535호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도로 총연장은 1995년 4,931km에서 2014년 8,015.5km로 두 배가량 늘고, 자동차 등록 대수는 29만 8,459대에서 88만 7,190대로 세 배가량 증가했다.

도로와 자동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및 교통 사망자 수는 2만 8,941건 910명 사망에서 7637건 395명 사망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화재 발생 건수는 805건에서 2,784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농가 5만호 줄고 돼지는 100만 마리 증가

이밖에 농가 수 및 농가 인구는 1995년 19만 2,922호 64만 1,118명에서 2014년 14만 4,033호 35만 6,158명으로 각각 줄었다.

소 사육 두수는 47만 9,270두에서 47만 3,245두로 소폭 감소했으나, 돼지는 120만 1213마리에서 223만 7,326마리로 100만 마리 이상 폭증했다.

상수도 보급률은 43.2%에서 91.1%로, 1인당 1일 급수량은 307에서 414.5ℓ 로, 1일 쓰레기 수거 처리량은 1,616t에서 2,583t으로 각각 늘었다.

도 관계자는 “민선 부활 20주년을 맞아 도정의 변화상을 통계를 통해 살펴보기 위해 각종 지표를 재정리·분석했으며,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각종 업무 계획이나 정책 개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서울시 인권기구 전국 첫 맞손

충남도와 서울시 인권기구가 양 시·도의 인권 관련 규범과 정책, 제도 등을 함께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충청남도 도민인권증진위원회(위원장 우주형)와 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는 3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권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도 도민인권증진위와 서울시 인권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권에 관한 규범과 정책,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 운영,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구체적으로도 도민인권증진위와 서울시 인권위는 양 시·도민의 인권 증진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규범과 제도 개선 관련 자료를 상호 공유한다.

또 인권정책 수립에 관한 자료의 교환·교류·협력, 인권교육의 확대와 활성화 노력, 인권에 관한 간담회·토론회 등 다양한 공동행사 개최 및 인권 홍보 및 기타 인권에 관한 상호 협력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인권기구들이 교류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MOU를 체결하기는 이번이 전국 처음으로, 국내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 앞서 도 도민인권증진위와 서울시 인권위 위원 등 30여명은 도청 접견실에서 안희정 지사를 만나 양 지역 인권 증진 방향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서울시민과 충남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의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양 자치단체 인권기구들이 다양한 방면에 걸쳐 교류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기후변화 대응 전초기지 문 연다

—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3월 27일 개소식 갖고 본격 활동 돌입

충남지역 기후변화 대응 전초기지가 될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가 3월 27일 개소식을 갖고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삶의 질과 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개발 필요성에 따라 충남발전연구원 산하 기구로 설치됐다.

연구소 시설은 내포신도시 업무시설용지 2258㎡의 터에 지상 2층, 연건평 989㎡ 규모로 마련했으며,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물환경연구센터, 교육운영팀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추진 과제는 기후변화 대응(원화·적응) 정책

고도화 및 발전 방안 연구, 민·관 대상 정책 지원 시범 사업 운영 등 ‘지역맞춤형 창의적 정책 지원 과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장기 변화 모니터링,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예측 지역 모델 개발 등 ‘기후변화 지역정보 생산 및 모델 구축’ 등이다.

또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체계 구축 등 민·관·산·학·연 기후변화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기후변화 영향 부문별 모니터링 및 평가, 서해안 및 수계별 물 통합 모니터링, 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지역 모니터링·평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모니터링·평가 체계 등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수요자 중심 기후변화 교육을 통한 도민 실천력 증진, 환경 피해 최소화를 통한 도민 건강권 보장, 미래 기후산업 육성 및 발굴, 서해안 연안 환경 통합관리 기반 마련, 도내 기업에 대한 환경경영 컨설팅 등도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단계별로는 출범 첫 해인 올해부터 2017년까지는 기반 조성기로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에 집중하고, 2018~2019년 도약기에는 사업 지원 및 교육 기능을 확대하며, 2020년 이후 성숙기에는 선도적 지방주도형 사업 모델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체제가 필요하며, 충남 서해안 지역의 경우는 화력발전소와 임해산업단지 밀집으로 환경 피해까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설치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정책과 도민 환경 피해 대책을 연구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X공주역 이용 4대 여행코스 나온다

- 백제문화권 관광지 엮어...4월 2일 호남고속철 개통 맞춰 첫 선

충남도와 코레일은 KTX 공주역을 이용해 백제문화권을 여행할 수 있는 4대 대표코스를 발굴, 호남고속철도 개통일인 4월 2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4대 대표코스는 공주코스, 부여코스, 공주·부여코스, 농촌체험 코스 등으로,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기차여행 특별기획상품 공모를 통해 엄선했다.

각 코스를 구체적으로 보면, 코레일관광개발이 주관하는 공주코스는 무령왕릉과 국립공주박물관, 공산성, 석장리 박물관, 백미고을 등을, 아름여행사가 주관하는 부여코스는 정림사지, 부소산성, 백마강 유람선, 농산리 고분군, 구드레 음식특화거리 등의 여행지로 구성했다.

또 공주·부여코스는 공주코스와 부여코스 모두를 관람하는 것으로 KTB투어가 주관하며, NH 여행이 맡은 농촌체험코스는 국립공주박물관과 부여기와마을, 농산물 수확 체험, 백제 떡 만들기 체험 등으로 엮었다.

이들 여행상품은 코레일이 요금 할인을, 도와 공주시·부여군은 입장료 할인, 버스 및 문화해설사 지원 등을 실시, 관광객들이 KTX를 타고 알차배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여행상품 출시로 관광객들이 백제문화권을 보다 편하고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KTX 공주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축제나 입영열차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 "올해 충청남도 GRDP 100조 시대 돌입"

- 서울·경기에 이어 3위... 도민의 삶의 질 연결과제는 숙제

올해 충청남도 지역내 총생산(이하 GRDP)이 106조원으로 예상된다는 전문가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책임연구원은 충남리포트 154호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고, 유가하락, 재정지출 확대와 투자 촉진 등의 정책효과로 3.8%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충남은 5.5% 성장이 예상되고, GRDP는 106조원으로 100조를 넘어서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소비심리 회복 지연과 가계부채 등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은 지난 2013년에 GRDP가 96.8조원으로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며, 성장률은 5.3%로 충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김 책임연구원은 "그간 충남은 양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이

도민의 삶의 질로 직결되었는지는 따져보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충남도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등 본격적인 GRDP 100조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 비전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남발전연구원, 현장 총서 시리즈 발간

- 첫 번째로 강현수 원장 ‘인권 도시 만들기’ 펴내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강현수)은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찾을 수 있는 정책과 관련 사례들을 담은 ‘현장 총서’ 시리즈를 기획·발간했다.

이에 충남발연 강현수 원장은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인권 도

시 만들기”를 펴냈다.

지역발전을 전공한 저자는 ‘발전’에 대한 의미를 ‘인권의 확장’이라 정의내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권의 종류와 범위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인권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인권 보장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민의 일상생활 영역인 지역 사회 안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인권의 핵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인권 도시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보편적이지만, 인권 도시의 실행 방식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 증진 시책도 중요하지만, 그 시책의 추진 방식 또한 인권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저자에게 가능한 통찰이다.

이 책은 인권 도시를 지향하는 지방 정부 담당자들, 인권 관련 단체와 활동가들, 인권의 주체이자 인권 의식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개인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한편, 충남발연 관계자는 “이 현장 총서는 곧이어 발간될 ‘마을 만들기를 위해 알아야 할 28가지(가제, 장수찬 옮김)’를 비롯해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라며, “지역 현장에서 얻은 실천적 지혜를 모아 확산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발전연구원, ‘2015 전직원 워크숍’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강현수)은 1월 15일부터 1박 2일 간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전직원 워크숍을 가졌다.

“20살의 청춘! 꿈을 설계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 비전과 미션’을 수립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한편 이튿날에는 문화해설사와 함께 부소산성, 고란사 등 주요 유적지를 돌며 백제의 우수한 문화유산도 재확인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발연 강현수 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10년 뒤의 연구원 미래를 구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개원 2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도 모아보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님아, 그 강을...’ 한경수 PD, 충남발전연구원 초청특강



3월 2일 오전10시30분 연구원에서 다큐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제작자인 한경수 PD를 초청해 “<님아...>를 통해 본 다큐멘터리와 삶”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한경수 PD는 이번 특강에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제작과정과 후일담을 시작으로 다큐멘터리가 다루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제작의 열악한 현실과 극복 방안 등에 대해 들려주었다.

현재 아거스필름 대표이자 한국독립PD협회 글로벌전략위원장인 한경수 PD는 독립영화로는 처음으로 관객수 500만명에 육박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비롯해 방송·영화 연출 및 제작자로 꾸준히 활동 중이다.